

연중 제 31 주일

# 숲 정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 5,3).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기도서 464면 (A해)

제1독서 : 목 시 7,2-4.9-14

제2독서 : 1 요한 3,1-3

복 음 : 마태오 5,1-12a

□ 강론



## 성인들을 본받아 성덕의 길에

성 태 수 신부

새로 태어나는 어린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주보 성인의 새 이름을 받는다. 성인의 이름을 받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로 태어남의 의미와 주보 성인의 모범을 따르고 그 전구를 청하는 의미가 있다.

우리는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고 있다. 우리 지상의 교회는 이미 하느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성인들이나 연옥에서 정회 중에 있는 연령들이나 모두 하느님 안에 영적 친교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천상 교회의 전구로서 지상 교회는 보다 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오늘은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이다. 우리가 모든 성인들을 기억하고 공경하는 이유는 그분들을 본받아 우리도 그분들과 같이 성화되기 위함이다. 사실 우리 모두는 성화의 길, 성덕의 길에 불림을 받고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마태 5, 48)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는 성인들의 모범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고 그분들은 우리와는 동떨어진 차원에서 사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약점을 지니신 분들이었다. 그러나 그분들은 꾸준히 하느님을 찾아 성덕의 길에 매진하신 분들이었다. 성 아우구스띠누스께서도 회개할 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나는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성인의 길을 가고자 노력하셨다.

우리가 성인들을 공경한다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실천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다. 어느 의미로 우리들 자신의 쇄신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맡겨드림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게 하고 하느님의 본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거룩함을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 복음의 증거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성인의 날인 오늘은 특별한 생애를 사셨던 성인 성녀들 뿐 아니라 평범하게 사시다가 천국에 가신 모든 분들을 공경하는 날이다. 이러한 분들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우리 부모형제, 친척들도 있을지 모른다.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이요, 큰 희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11월 위령성월을 지내면서 연령들을 위하여 미사와 기도와 회생을 드림으로써 그분들이 하루 빨리 성인들 반열에 들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생각하자.  
(덕진 천주교회)



## 텔레비전 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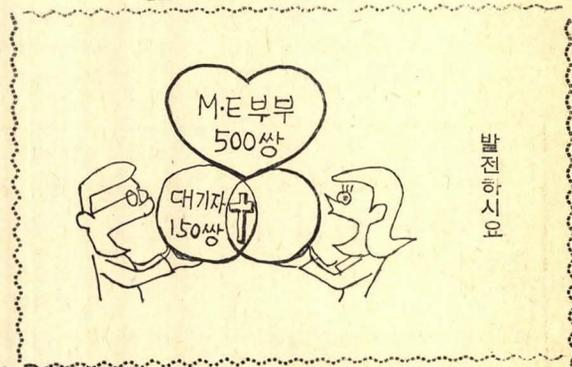
요즈음도 텔레비전 시청료에 대한 화제가 가끔 나온다. 마음이 약한(?) 시민이 시청료를 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친구들의 의견을 물어 보면 대답이 각양각색이다. “우리 집은 아예 받으려 오지를 않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왔길래 아직도 공정보도가 안되고 있으니 못내겠다고 했지” 하는가 하면 “나는 좋은 세상이 오면 그때에 가서 한꺼번에 다 낼 예정이야” 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내는 사람도 있다. 왜 이렇게 시청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가?

텔레비전 뉴스 보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다. 어느 신문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의 결과가 바로 그것이다. -“아주 공정하다”(2.0%)거나 “공정한 편이다”(30.2%)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시민은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불공정한 편이다”(36.8%)거나 “아주 불공정하다”(18.9%)고 응답한 서울시민은 절반을 넘고 있다.

언론의 생명은 그 첫째가 신속하고도 정확한 보도이어야 한다. 그리고 공정한 해설과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곳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아울러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민주주의가 싹을 틔우기도 어렵다. 그래서 독재자나 공산주의자들은 언론을 통제하거나 말살시키는 것이다.

민주화를 향한 부른 마음들이 언론자유를 생각하는 때 목에 이르르면 마음이 답답해진다. 6·29 선언은 무얼 하자는 선언인가? 정말로 이대로 가다가 말 것인가? 아직도 더 많은 피로움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정말로 답답하다. 그래도 한 가닥의 희망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새 신문(가칭 새 겨레 신문)을 기다리는 재미로 산다.

## 숲 정 이 산책



발전하시요

□ 11월 위령성월

「그리스도인과 죽음」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과 불안을 주면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고 죽는 것이 순리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고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확신 때문입니다.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 하지 말고……”(마태오 10, 28)라고 하신 말씀은 육신이 죽는 위에도 생명의 원리는 계속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육체가 소멸된 후에도 계속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고 지복적관을 누릴 수 있으며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세상을 떠난 영혼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계시하신 진리, 즉 죽음이 모든 것의 끝장이 아니라 초자연적 질서, 다시 말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진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이들을 잊지 않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이

에게도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교다운 의미를 음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초세기부터 죽은 이들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리엔토노 공의회에서는 “연옥은 존재하며 여기에 있는 영혼들은 살아 있는 신자들의 기도와 미사성제로 도움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교회는 11월 2일을 “위령의 날”로 정하여 전 세계의 모든 사제들이 죽은 이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고 있으며 또한 11월을 “위령의 달”로 정하고 한달 동안 특히 연옥에서 정화 중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령의 달을 맞아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 먼저 자신 이들의 영원한 행복을 원하는 기도와 선행과 회생을 바쳐야겠고 더욱 성실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표양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성모성년, 가르침

「구세주의 어머니이시며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루가 1 : 39-45)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이며, 그러므로 또한 신앙과 세례로써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머니입니다.

만일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다면 모든 가족들은 좌절감과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마리아를 그리스도교 가르침에서 제외할 때도, 동시에 같은 결과가 일어나리라. 마리아는 참으로 인자한 어머니이시며 우리들의 도움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당신의 능력있고 효과있는 현존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서 당신 부활을 실현하시는 것처럼 마리아께서도 사랑스런 보호자로 현존하시며 그 속에서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당신 모성으로써 당신 아드님의 형제들이 천상 고향으로 인도될 때까지 위험과 고통에 가득찬 지상에서의 여정을 돌봐 주신다. 그 때문에 교회에서는 복되신 동정녀를 변호자, 보조자, 협조자, 중재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것은 유일한 중재자 그리스도의 지위와 효능을 조금도 감하지도 가하지도 않는다는 의미로 알아야 한다”(교회헌장 62항).

마리아를 표상하는 성모상은 마리아의 덕성과 역할, 그리고 영광을 상징한다. 예컨대 마리아의 순결함은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동정녀이신 성모상에서 상징되며,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아기 예수를 안고 있거나 구유 앞에 무릎 꿇고 계시는 성모상에서 상징되며 비탄과 슬픔에 잠긴 어머니로서의 위대성은 십자가 아래서 자기 무릎 위에 아들의 몸을 안고 계시는 성모상에서 나타나며 모든 성인들과 친사들의 여왕으로서 영광을 받으실 영광으로 빛나는 관을 쓰고 계시는 성모상에서 나타난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모상의 전반부에서 마리아의 신덕표양을 찬양하고 후반부에서는 마리아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전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 또한 마리아를 찬양하면서 ‘눈물의 골짜기에 있는’ 그녀의 자녀들은 애통해하면서 천상의 성모에게 기도를 드린다.

더구나 거룩한 백성들은 하루 세번 삼종기도를 바치고 또한 로사리오 성월(10월)을 지내면서 마리아에게 영광을 드린다. 그리고 성모님의 축일 때도 영광을 드린다. 또한 성모님에 의해 거룩해진 성지를 순례한다.

보신탕·메기탕·백숙·통개  
·오모가리·토끼탕·추어탕  
·자연담 및 주류일절

**대추나무집**

진 창 길(영춘·바오로)  
김 복 순(가타리나)  
(자동차 대기)

완주군 구이면 향가리 마을  
(구이 성덕다리 옆)  
전화 82-6019

전북의료조합 지정

**김 생 기**

**산부인과**

전문의 김 바오로  
신 실비아

전주 ☎ 6-6077  
(조흥은행앞 윤의과 내)

각종 선물용 동양화 소품  
수석, 장식용품 미니화랑

**아프리에 지 당**

강 요셉(지당)·한 크리센시아(순례)

전주 중앙(시장)상가 1층 273호  
상행 에스컬레이터 좌측편  
자택 전화 6-1075 번

# 교 구 소 식

1. 치명자산 성직자모지 축성미사 : 2일(월) 오후 2시30분, 장소-치명자산 성직자모지
2. 교구 사제 연례피정 : 일시-11월 2일~5일, 장소-천호 피정의 집  
 ※ 사제 피정중 각 본당의 유의사항  
 ① 피정기간중 평신도의 방문은 일체 금합니다  
 ② 사목회 주관으로 "말씀의 전례"를 해주십시오  
 ③ 긴급한 병자성사, 장례미사 등은 사목국에 연락바랍니다  
 ④ 피정기간중 사제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 바랍니다
3. 사회복지회 월례미사 : 2일(월) 오전 10시30분, 장소-사회복지회관
4.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2일(월) 오후 7시, 장소-가톨릭센터
5. 푸른군대 피정 연기(사제 피정관계로) : 11월 12일(목) 오전 10시  
 장소-덕진천주교회
6. 성 빈첸시오 아·빠울로회 교구이사회 : 10일(토) 오후 2시, 장소-사회복지회관
7. '87 성령쇄신 전주대회 : 일시-11월 7일(토) 오후 2시~10시, 회비-1천원  
 장소-전주 중앙성당, 준비물-미사도구·묵주·성가집·도시락  
 초청강사-"윌리엄 제이·베티" 내의분(미국 가톨릭 성령쇄신 봉사회장)

□ 위령의 날

### 치명자산 성직자모지 축성미사 및 위령미사

일시 : 11월 2일 오후 2시30분    장소-치명자산 성직자모지

※ 교구 신부님들의 합동미사가 있어야오니 신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잠 간 !

「많은 기도를…」-교구 사제 피정

“사제는 거룩한 서품(叙品)과 주교로부터 받는 파견(派遣)으로 사제이시며 왕이신 스승 그리스도께 봉사하기 위하여 선임되어 그리스도의 직무에 참여한다. 이 직무에 의해서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 그리스도 몸, 성신의 궁전으로서, 이 지상에 끊임없이 건설되고 있다”(사제 직무교령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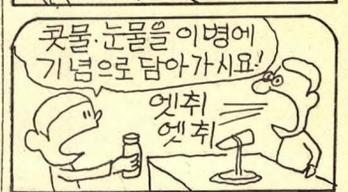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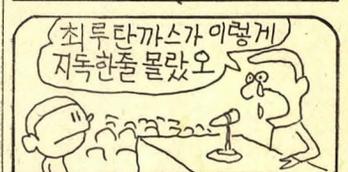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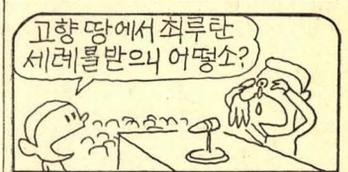
그러나 사목의 환경과 인간들의 조건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제들의 직무는 날로 더 다양해지고 과중해진다. 이에 교회에서 권장하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항상 높은 성덕을 지향함으로써 날로 더욱 하느님의 백성 전체에게 온전히 봉사하기에 유익한 연장이 되도록- (사제 직무교령 12).

교구내 사제들의 가을 연례피정이 시작된다.

11월 2일부터 3박4일간의 이 피정은 김보록(서울교구) 신부님의 지도로 천호 피정의 집에서 실시된다. 이 기간동안 신자들의 면회는 일체 금지되지만 신부님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해야 할 것이다.

“주여 우리 사제들이 거룩한 생활과 하느님 뜻에 드는 희생으로써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로마 12, 2 참조).

## 요심이 (743) 김병오



□ 1분명상

이 불품없고 허세 많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G. 알베리오네

명동피부과의원

\* 축 개 업 \*

### 마 모 스

- 신생아복    ○ 유아복
- 유아용품    ○ 육아완구
- 이 명 역(테레사)
- 이 명 숙(마리아)
- 83-2585
- (코오롱쇼핑 1층)

### 성령쇄신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날자 : 11월중 매주 토요일(4주간)

11월 7일·14일·21일·28일

시간 : 오후 2시30분~7시30분까지    대상 : 모든 교우

회비 : 3천원    장소 : 이리 창인동 천주교회

접수 : 11월 1일(일)까지 창인동 성당

주관 : 서울대교구 오순절 성령쇄신봉사회

※ 끝주 토요일(28일~29일)은 천호성지에서 철야산 기도회 있음

### ● 맥주의 참맛을 즐기십시오!!

여러분은 맥주공장의 저장통에서 금방 흘러나온 맥주를 드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격적인 서구풍 Beer Pub

## 카 이 저 호 프

※ OB가 맛을 관리합니다

한성여관 사거리 ☎ 85-8801

오 재 천(안드레아)

북 전주지구 본당소식

(중앙)

사제관 5-1713 주임신부 성민호
사무실 5-1711 보좌신부 최상범
수·휴 5-1712 사목회장 엄도

- ☆ 밤미사안내: 4일 오후 8시, 4반-백정수(3-0231)
☆ 감사합니다: 본당신부님 은경축일에 도움을 주신 분
1. 11월은 위령성월: 위령의날-2일
2. 오늘은 "모든 성인의날" 대축일입니다
3. 사제 연례피정: 2일(월)~5일(목) 천호 피정의집
4. 미사없음: 3일(화)~5일(목) 사제 피정관계로
5. 위령성월 합동위령미사 및 연도: 6일(금) 어머니미사
6. 모임: 사목회-오늘 공식미사 후
7. 삼직자모지 축성식: 2일 오후 2시30분-성직자모지

(금암)

사제관 5-1653 주임신부 오현택
사무실 3-1653 사목회장 소완영
수녀원 76-0961

-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1. 사목회: 차주 공식미사 후
2. 차주는 친교주간: 이웃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다
3. 신부님 피정: 2일~5일까지, 많은 기도드립니다
4. 모니카회 월례회: 12일 오전 10시
5. 미사예를 봉헌요망: 가정용 위한 생미사·선령을 위
6. 신자 등반대회: 오늘 공식미사 후(모악산)
7. 김사: 신자 테니스대회에 협조해 주신분께
8. 신축헌금: 박귀식-5천원, 박실빈-5만원, 서광일-7만원
9. 금주복사: 김명수·김옥기 차주: 이창우·문승욱
10. 금주봉헌: 김명덕 부부, 차주-김재열 부부
11. 미사안내: 애덕의 모후pr 차주: 창조주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634,465원 교무금: 991,000원
신축헌금: 205,000원

(덕진)

사제관 72-6107 주임신부 성태수
사무실 3-2182 사목회장 김낙현
수·휴 72-1222

-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우리들의 기도, 미사참례,
☆ 교구 사제 연례피정: 2일~5일, 천호 피정의 집에서
1. 오늘의 모임: 사목회 상임회의-공식미사 후(사목회의실)
2. 가리따스 자모회: 3일 오후 2시
3. 성심부녀회: 4일 오전 10시
4. 신자 1일피정(푸른군대 주관): 12일 오전 10시부터
5. 유아세례: 6일 어머니미사 후, 5일까지 사무실 신청
6. 교구의 본분인 교무금과 주일헌금에 많은 정성 바랍니다
7. 금주 분당청소: 창조주의 어머니pr-7일 오후 2시
□ 지난주 봉헌금: 608,840원 교무금: 271,000원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권이복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한상갑

- ☆ 성서 공부합니다: 베제시간 주제-우리 스승 예수
1. 신부님 연례피정: 2~5일, 천호 피정의집
2. 예비자교리: 성인-목요일 7시30분, 중·고생-토요일 6시
3. 모임: 사목회 정기총회-오늘 공식미사 후(교육관)
□ 지난주 봉헌금: 449,030원

- 대회-8일, 애령회-오늘 공식미사 후, 울뜨레아-9일 7시30분, 안나나-차주 공식미사 후
4. 금주 구역미사 모임: 3일 모임-광1주·농원 4일 나눈잔치-동2주, 6일 미사-원반월
5. 청소: 자비의 모후, 방문-하늘의문
6. 금주전례: 해설-한기철, 독서-①최연조 ②전집순
7. 수녀원 신축헌금 신일 및 남부현황: 26일까지
□ 지난주 봉헌금: 606,620원 교무금: 681,600원

(송천동)

사제관 74-1004 주임신부 김태윤
사목회장 소병을

- ☆ 11월은 위령성월: 선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 금주모임: 사목회 월례회-공식미사 후
2. 사제 연례피정: 2일~5일(천호 피정의집)
3. 중·고생을 위한 학생미사: 토요일 오후 5시(특전미사)
4. 김사: 제1회 송천주일학교 소풍에 협조해주신 분들
5. 금주전례: 해설-김은식, 독서-한인수·천양희
6. 금주 분당청소: 1·2반-7일 오후 2시
□ 지난주 봉헌금: 200,790원 교무금: 590,000원

(송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궁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박해근
수녀원 3-9567

- ☆ 11월은 위령성월이면서 연령을 위해 기도하는 달입니다: (11월 2일 연속적인 미사가 3대 있음)
1. 주교님을 모시고 600여명의 전신자가 참여한 축하연
2. 오늘: 6월반 예비자 성지순례(천호성지)-공식미사 후
3. 신부님 피정: 2일~5일, 천호성지
4. 부녀회: 7일 오전 10시, 구역장 회의: 7일 오전 11시
5. 사목회 연기: 10일 오후 8시로
6. 다들주: 울뜨레아-공식미사 후
7. 분당 조경사업: 지중과 협조하신 분들께 감사
8. 미사안내: 매피의 모후
9. 금주 분당청소: 화-평화의 모후, 토-애덕의 모후
10. 금주전례: 해설-이귀래, 독서-기도-김남곤·이영희
□ 지난주 봉헌금: 606,620원 교무금: 681,600원

(인후동)

사제관 74-1929 주임신부 서용복
사무실 75-6389 사목회장 김병문
수녀원 75-6389

- 1.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먼저가신 선영을 위해 미사 봉헌하고 연도합니다
2. 사목회의: 오늘 공식미사 후
3. 사제피정: 2일~5일까지 천호 피정의집
4. 구역장님 모임: 5일-말씀의 전례 후에
5. 둘째주일은 애령주일입니다: (다을주), 성규 예규약
6. 유아세례: 오늘 오후 6시30분까지 사무실에 신청
7. 11월 청소: 사랑하을 어머니(매주 월요일)
8. 금주전례: 해설-진경자, 독서-기도-채수원·안남찬
□ 지난주 봉헌금: 449,030원